

# “인문학, 사람답게 사는 법 일러줘”

##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계종 화쟁리더십아카데미-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

경제의 논리가 사회 전반을 침투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간 삶의 목적은 온통 돈이 되어버렸는지 모른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인문학, 속된 말로 돈이 되지 않는 인문학이라는 학문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미 멀어졌다. 그러면 인문학은 저 먼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져 버려야 마땅한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은 이 삭막한 자본주의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4월 2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화쟁리더십아카데미에서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71)가 인문학의 역할을 논했다.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를 통해 현대 사회 속 인문학의 의미를 되짚어본다.

정리=정혜숙 기자 bwhs@hyunbul.com

### 자본주의 사회 인문학의 가치 전락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은 결코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과 우정 같은 무형의 가치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인문학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가격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팔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똥값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 모두가 목적과 수단이 전도돼 버리고 가치가 물구나무 서고 있는 것이죠”

도정일 교수는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며 인문학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런 현상 자체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도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을 돌리는 시장 가치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돈이 안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돈이 만물을 재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 수 없는 것은 시장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리죠”라고 설명한다.

그는 현재 돈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대학 사회를 예로 들며 시장사회의 폐해에 대해 얘기했다. 도 교수는 “지금 우리는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말하던 대학도 모두 시장판이 되었습니까. 학생 기숙

사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뛰어들어 시공하는 세상입니다. 스타벅스 등 대기업 매장들이 모두 대학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학제에도 시장 용어가 도입돼 학생을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도 하죠. A학점 많이 줘라, 교재는 어떻게 만들어 달라, 이 과목은 이렇게 개선해 달라 등등 마치 고객의 입장이 돼서 불만들을 학교에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 배금주의는 소문 불가능 사회 낳아

이러다 보니 대학은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혼돈된 사회가 되고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 또한 돈을 신봉하는 구성원으로 길러지게 된다는게 도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5개 이상 써내라고 하면 대부분이 1등 아니면 2등이 돈입니다.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인문학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아마도 부처님이 다시 태어나셔서 하루만 인문학 강의를 하라고 한다면 중생이고 보살이고 다 귀찮다고 도망 갈 것입니다”라며 현 대학 교육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도 교수는 미국의 호화 감방, 대리모 제도, 기념품점으로 전락한 영국의 대성당 등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대리모는 자궁을 파는 거죠. 백인 여성 자궁은 7만 불, 인도 여성은 7천불 한다고 합니다. 인도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가격이 10분의 1 정도 싼 거죠. 이처럼 우리는 생명조차에도 다 가격을 매겨 팔아먹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팔아먹을 수 없는 것은 똥값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수단이 목적이고 생명이 생명 그 자체로 목적이입니다. 하지만 이익을 내야만 하는 시장 사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면서 소문 불가능의 사회를 만들고 있죠”라며 서글픈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때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사회현상을 낳는다. 그는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요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목적이입니다. 하지만 이익을 내야만 하는 시장 사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면서 소문 불가능의 사회를 만들고 있죠”라며 서글픈 현실을 이야기한다.

### 돈이 최우선 가치 된 현대사회 학문의 상아탑 대학도 시장판 나 위해 남 짓밟는 모순 반복돼 불교의 자비심 최고의 윤리 지침

다. 선거에 나온 정치인은 무조건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은 A학점을 맞기 위해 남의 레포트를 베끼기 짜깁기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이겨야만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채 앞으로만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공동체 붕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 교수는 “인간은 공동선을 추구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인문학은 이런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미국 등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도 교수는 “미국의 금융 파동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에만 몰두하다보니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부 격차가 늘어 고통이 늘어났습니다. 이 모두가 시장원리가 사회로 그대로 들어와 적용돼 생긴 부작용입니다”라고 전한다.

### 혼돈 극복 위해 공존과 공생 모색해야

이런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재론적 이유를 사유하고 공존과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국민들 삶의 윤리적 잣대가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는 4월 2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강의했다.

되어야 한다고 도 교수는 주장한다. 그는 “공존과 공생은 내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가치가 반영돼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시장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가치죠. 그리고 이런 가치들을 꾸준히 얘기해 왔던 분자가 바로 종교와 인문학”이라고 말한다.

특히 도 교수는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 비폭력 등이 최고의 윤리적 행동 지침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 연민 동정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그는 “결국 인문학을 통해 내가 타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종교 예술 인문학에서만 찾을 수 있는 가치죠. 그래서 인문학 교육이 중요합니다. 시 한편 또는 소설책 한 권을 통해 우리는 내가 살아

보지 못한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 또는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 등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가치라고 말한다. 도 교수는 “인간을 수단으로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존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철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는 시민은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행위죠.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자비심이고 측은지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성적 판단과 정서적 함양을 위해 인문학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강의를 마무리 했다.



50여 명의 수강생들이 도정일 교수의 인문학 강연을 경청하고 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안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설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 신부님 출가익식 지원

신부님은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난민피해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